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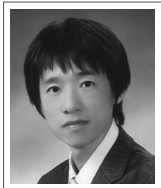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BIOLOGY of FISH 참가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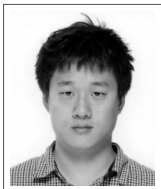
오 국 열 |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
kroh@kongju.ac.kr



박 종 렬 |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과정
jrpark@kongju.ac.kr



이 성 현 |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과정
shlee1@kongju.ac.kr

Barcelona의 연고지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금번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BIOLOGY of FISH 학술발표회는 American Fisheries Society(AFS)에서 주최하였으며,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18개의 Session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6개국으로부터 676여건의 논문이 투고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어류생태학, 어류생리학, 어류서식처 등 어류전반에 관한 연구가 소개 되고 질문이 이루어졌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BIOLOGY of FISH에서 행해진 학술발표 및 각종 행사와 필자들의 참가소감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머리말

유난히 더웠던 지난 7월, 필자를 비롯한 일행은 2010년 7월 5일에서 9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 열리는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BIOLOGY of FISH (<http://sidciencias.uab.es/9FishBiologyCongress/>)에 참석하기 위하여 유럽의 남서쪽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로 우리나라와 수교 60년을 맞는 스페인(Spain)으로 떠났다. 약 14시간 정도를 비행하여 도착한 곳은 스페인의 도시 중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바르셀로나(Barcelona)이다. 바르셀로나는 1992년 몬주익 올림픽 개최지와 세계 최고의 클럽 축구팀인 FC

2. 본론

이번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BIOLOGY of FISH는 바르셀로나에서 가까운 Bellaterra(사진 1 참조)라는 곳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UAB)에서 개최되었다. 이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스페인의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하였다. 의외로 바르셀로나의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여서 이용하기가 편리하였다. 바르셀로나 중심지를 벗어나 외곽지역에 위치한 UAB를 가기위해 30분가량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여 UAB에 도착하였다. 사진 2는 UAB SERHS Campus의 전경이다.



사진 1. Bellaterra 역 앞



사진 2. UAB SERHS Campus 전경



사진 3. 학술회 발표장 앞



사진 4. 학술회 등록 데스크

2010년 7월 5일에서 9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UAB) SERHS Campus(사진 3 참조)에서 학술발표회가 이루어졌다. 첫날인 5일에는 등록과 접수(사진 4 참조)가 진행되었고, 학술발표회 등록시에는 학술발표회

일정이 담긴 책자와 투고된 논문의 Abstract가 담긴 USB Memory를 주었다. 6일부터 9일까지 각 분야별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학술발표회 전체 Session과 일정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어류서식처에서부터 기후변화,

표 1.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BIOLOGY of FISH Program

Date	Time	Title				
7. 5	15:30~19:30	REGISTRATION				
	18:30~20:00	WELCOME RECEPTION				
7. 6	09:00~13:00	Opening ceremony + PLENARY TALKS				
	13:00~15:00	Lunch + POSTER SESSION				
	15:00~19:00	Room 1	Room 2	Room 3	Room 4	Room 5
7. 7		Burbot	Swimming	Zebrafish	Sexual Dimorphism	Habitat
	09:00~13:00	Climate Change	Migration Spawning	Immune	Toxicology	Habitat
	13:00~15:00	Lunch + POSTER SESSION				
7. 8	15:00~19:00	Climate Change	Behavioural Ecology	Immune	Toxicology	Habitat
	09:00~13:00	Living Edge	Keeping Pace	Stress	Contributed papers	Habitat
	13:00~15:00	Lunch + POSTER SESSION				
	15:00~18:30	Living Edge	Keeping Pace	Stress	Contributed papers	Habitat
7. 9	19:30~22:00	Banquet Dinner				
	09:00~13:00	Tropical	Aquaculture	Social Interactions	Ion Regulation	Muscle
	13:00~15:00	Lunch + POSTER SESSION				
	15:00~19:00	Tropical	Aquaculture	Social Interactions	Ion Regulation	Muscle
	19:00~19:30	Closing Cere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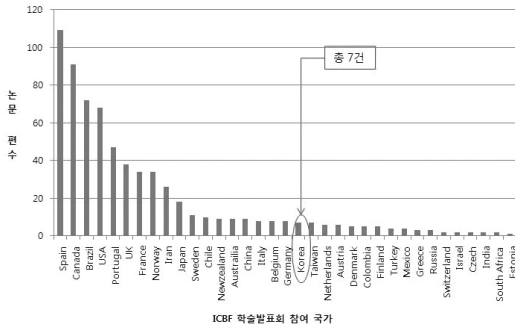


사진 5. 각 나라별 전체논문 투고현황

어류습성과 면역반응, 어류심리학, 어류생리학 등의 주제로 발표와 연구토론이 진행되었고, 세계 36개국에서 총 676건의 논문이 투고되었다. 총 405건의 구두발표와 271건의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개최지가 스페인이다 보니 스페인에서 투고한 논문이 10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논문은 4건의 구두발표와 3건의 포스터발표로 참여도가 낮았고, 사진 5에 금번 학술발표회 각 나

라별 전체논문 투고현황을 그래프로 도시화하였다.

필자는 학술발표회 기간 중 7월 7일 Habitat Session에서 Evaluation of Fish Habitat for the Fishway Passage Location in the Nakdong River Estuary의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국내학술발표회와는 달리 발표장의 분위기는 발표자나 질문자들이 서로 편하게 대화하듯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학술적 열의만큼은 사뭇 진지하였다. 구두발표와 포스터전시는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었으나, 간혹 스페인어로 구두발표가 진행되거나 포스터가 전시되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BIOLOGY of FISH 학술발표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2012년 학술발표회는 미국 위스콘신(Wisconsin)주의 매디슨(Madison)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 6에서는 구두 및 포스터발표 현장의 이모저모를 엿볼 수 있다.



사진 6. 학술발표회 구두 및 포스터 발표 현장

3. 'Biology of Fish'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동향

ICBF(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BIOLOGY of FISH) 국제학술발표대회는 Biology of Fish 분야 중 어류생태학과 어류생리학에 많은 관심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고, 학술발표회 중에서는 양식 어류의 생리학 부분이 가장 많은 논문 투고와 발표가 진행되었다.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어류서식처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금번 학회를 통해 생태분야의 세계적인 연구흐름을 살펴본 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생태분야 또한 수자원분야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 및 담수의 수온변화에 따른 어류의 서식처변화와 행동 변화, 산란지의 변화, 어류의 생리적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시설이나 관심도 등이 미진한 생태수리실험 연구가 국외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16개 다기능보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번계기를 통해 치수적 측면에서의 수리모형실험 뿐만 아니라 생태수리학적 접근을 통한 생태수리실험 연구가 많이 활성화 되길 기대해 본다.

4. 맺음말

금번 ICBF(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BIOLOGY of FISH)와 같은 국제학술발표대회 참석을 통하여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수자원학회의 학술발표회 보다는 규모가 작았으나 논문발표 및 토론행사들이 격식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면서도 진지함이 살아있었다. 특히 여러 Session 중에서 FISH Habitat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발표자와 참석자사이에 많은 질의와 응답이 오고 가며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으며,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이번 학술발표를 참가하면서 느낀 것은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여서 학술발표회 등록이나 안내, 교통시설 이용 등 의사소통이 다소 불편했다. 또한,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어류서식처에 관한 논문들은 약간 익숙하였지만, 어류생태학, 어류생리학 그리고 어류심리학까지 다양한 어류들에 관한 여러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연구자들 참여가 저조한 점이다. 향후 생태수리학의 국제적 관심도와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